

한국사회의 세대공존을 위한 세대교류의 이론적 논의*

Theoretical Discussion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for Intergenerational Coexistence in Korea

이 민 홍**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Minhong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ng-Eui University

(초록)

본고는 한국사회의 세대공존을 위한 1세대, 2세대, 및 3세대 간의 세대교류에 대한 학술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고찰한 개관이다. 이를 위해 세대교류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광범위하게 검토했으며, 또 세대교류의 이론적 논의로 세대교류의 필요성, 세대교류의 개념, 유형, 이론, 세대교류의 효과, 그리고 세대교류의 활성화 방안 등을 탐색했다. 세대교류는 전반적으로 세대 간 활동을 통해서 개인 및 가족차원에서 심리사회적 건강이 증진되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결속과 통합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대교류의 유형은 공간범위와 지속차원을 통해서 분류되었는데, 성격차원에서는 직접교류와 간접교류로 구분되었다. 세대교류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접촉가설이론이며, 접촉을 통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세대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세대통합적 공간 개발 및 확대, 세대교류를 위한 플랫폼 마련, 그리고 세대교류 프로그램과 실천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

주제어 : 세대공존, 세대교류, 접촉가설이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to promote academic understanding

* 본고는 경북행복재단의 연구보고서인 “권용신·이민홍·엄기욱·전용호(2016)의 할매할배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타당성 연구 정책”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임.

** 교신저자,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민홍 교수 (e-mail: minhong@deu.ac.kr).

about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among the old and young people in Korea. Literature review on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was extensively conducted as a research method. The necessity, concept, type, theory, effect, and promotion alternatives of the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 were explored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of the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 Results of the literature review showed that intergenerational activities improved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at the individual and family levels, resulting in social integration. The type of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is classified through spatial and continuous dimensions, and there is direct exchange and indirect exchange by characteristics of the interactions. A theory that could explain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is the contact hypothesis theory, which results in reduced false stereotypes and bias through contact.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expand an integrated space for intergenerational activities, to set up a platform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nd to develop and exp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programs and practices.

Key words : Intergenerational coexistence, Intergenerational relations, Contact hypothesis theory

I. 서 론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다세대(multi-generation)가 한 가정을 이루는 대가족이었으며,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미혼삼촌·이모, 손자녀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가족제도하에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돌봄을 가정에서 담당할 수 있었으며, 손자녀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오랜 인생 경험에서 체득한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손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역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안태운·서해정·박혜선·김명일, 2011).

그렇지만 압축적 현대화 및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정은 핵가족화로 변모했다. 그 결과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대한 돌봄을 더 이상 가족이 제공할 수 없고, 세대교류가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인은 정서적 및 물리적으로 고립되고, 손자녀는 부모가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방임될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서 받을 수 있는 사랑과 삶의 지혜가 더 이상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세대교류 단절로 노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확산되기도 한다. 가족갈등이 높아지고 가족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 부모살인, 부모폭행, 부부폭행, 이혼 등의 가정이 해체되는 양상도 높아지고 있다(김유경, 2015).

특히 한국사회의 입시 위주 교육제도와 인성 부재로 인해서 자살과 학교폭력이 대표적인 청소년 문제가 되었다. 청소년 사망원인의 1순위가 과거에는 교통사고이었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되는 통계에 따르면 2011년, 2012년, 2013년에는 자살이 1위를 차지했다(통계청, 2015a). 구체적으로는 인구 10만 명당 7.8명이 고의적 자해(자살)로 사망했는데, 2014년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7.9%가 자살을 생각해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청소년이 성인보다 자살률이 더 높다는 것도 한국사회의 청소년 자

살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청소년 자살의 중요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김지인·부윤정·이지선, 2015). 동급생들로부터 구타, 금품갈취, 언어폭력 등의 괴롭힘으로 인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건들을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김재엽·류원정·곽주연, 2015). 이러한 자살이나 학교폭력은 인성의 상실에 기인하며, 가정이나 학교, 및 사회로부터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신재환·권윤택·강운정, 2015).

유교주의 문화로 효와 가정의 화목을 강조하여 가족의 결속과 헌신을 중요시 해왔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근래 패륜범죄(예: 부모살인, 부모폭행, 노인학대, 방임)를 비롯하여 가정폭력(부부, 자녀), 가족해체(이혼, 결별)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박영숙, 2015; 이훈·노성훈·조준택, 2015). 대표적으로 노인에게 폭력을 행하는 고교생, 노부모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부모를 살해하는 행위 등 우리사회의 패륜행위가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김진혁, 2013). 이와 함께 이혼이나 별거, 경제적 어려움, 교육 등의 이유로 가정이 해체되어서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형태부터 법적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존재하더라도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이민홍·전용호·김영선·강은나, 2015). 특히 근래 우리나라의 이혼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즉, 1990년 45,700여 건에서 2014년 115,500여 건으로 증가),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전체 이혼율 중 49.5%를 차지하고 있었다(통계청, 2015b). 또한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인지적 및 정서적으로 미숙한 학령기 자녀들은 학업 및 성장에 관한 스트레스 이외에도 불안정한 환경 및 삶의 위기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김기화·양성은, 2016).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빈곤이나 만성질환, 무위, 사회적 고립, 노인차별 등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이민홍·고정은·김순은, 2015). 한국사회는 핵가족화로 인하여 세대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긍정적 효과는 사라지고 있지만, 수명연장과 저출산으로 노년층의 절대적 비율과 상대적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핵가족화로 인한 세대교류 단절과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의 미래사회의 부흥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노인문제는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생의 후반기에 들어서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들의 빈곤이나 건강, 소외, 무위, 방임이나 학대, 자살 등이 한국사회에서 이미 보편적 사회문제가 되었다(이민홍·고정은·김순은, 2015). 이러한 노인문제는 한 개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 국가 중 자살이나 빈곤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뉴스가 매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전국 노인실태조사(전국 975개 조사구, 거주노인 10,451명 면접조사)에서도 조사노인의 10.9%가 자살을 생각했으며, 그 주된 이유

가 빈곤(40.4%)이나 건강(24.4%)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최근 14% 이상인 고령사회를 거쳐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미 초고령사회 국가인 일본이나 독일, 이탈리아 등의 사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강은나 등, 2014). 특히 서구국가를 중심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에 주목하기 보다는 노인세대를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거대한 자원(untapped resource)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Austin, Des Camp, Flux, McClelland, & Sieppert, 2005). 그러나 우리 문화권에서는 노인세대를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건강하고 교육수준도 높은 노년층이 근래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김수영 · 이민홍 · 장수지, 2014; Sander & Putnam, 2006).

노년층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노력의 대표적인 유형이 사회참여인데, 서구문헌에 등장하는 여러 용어(social integration, civic engagement, social engagement, community engagement 등)들은 이를 강조한 것들이다(김수영 등, 2014). 사회참여는 가정이나 이웃, 마을, 지역사회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Levasseur, Desrosiers, & Tribble, 2007). 실제로 노인들은 가족에게 집안의 허드렛일을 비롯하여 손자녀 돌봄, 경제적 및 정서적 지원, 친구에게 정서

적 지원, 건강 증진이나 유익한 정보의 제공, 스트레스 대처, 고독감 및 소외감 감소, 이웃에게 신뢰감이나 위로, 의지, 젊은 세대에는 과거경험 공유, 기술과 재능 전수, 지혜, 법과 규칙,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자원봉사활동, 정책수립, 사회조직 참여 등을 통해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이민홍 · 이재정, 2010; Lee & Kolomer, 2007).

전술한 바처럼 압축적 현대화와 산업화로 인해 가족기능이 저하되면서 1세대는 무위나 소외, 방임문제, 2세대는 가족해체나 가족폭력, 그리고 3세대는 학교폭력이나 자살과 같은 부정적 결과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 간의 접촉이나 상호작용, 의사소통 등을 통해 지식이나 정보, 가치, 기술, 생각을 교류하는 것이 각 세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 및 세대교류 활동 사례에 주목했다(Argote & Ingram, 2000). 그렇지만 세대교류에 대한 학술적 및 정책적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는 한계 때문에 본고에서는 세대교류의 개념, 유형, 이론, 그리고 성과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II. 세대교류의 개념, 유형, 이론

1. 세대교류의 개념

세대교류에 대한 학문적 개념은 1960년대를 전후로 서구에서 정립되기 시작했다(Musgrove,

1963). 현재 세대교류(intergeneration)의 정의는 세대교류국제협력단(International Consortium for Intergenerational Programs: ICIP)에서 제시한 ‘젊은 세대(younger generations)와 나이든 세대(older generations) 사이에서 의도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원 및 배움을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de Souza & Grundy, 2007; Kaplan, Liu, & Radhakrishna, 2003). 여기에서 ICIP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에게 세대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1991년 조직된 연구자들의 모임이다. 그 세대교류 프로그램은 유치원, 학교, 지역사회조직(communitary organizations), 은퇴 커뮤니티(retirement communities), 병원, 종교기관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재능(talents), 기술, 에너지, 그리고 자원(resources)을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Henkin & Kingson, 1998/99).

세대교류는 아동이나 청소년, 청년, 노인 등 모든 세대가 서로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지혜와 경험, 기술 등을 자기 자신의 발달과 향상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실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안태운 등, 2011). 세대교류의 범위는 고령자, 장년층, 청년층, 아동층 등을 모두 포함하며, 세대 간의 상호교류는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문화를 더 깊이 있게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고령세대에게는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사회성 함양에 기여하는 기능을 지닌다(정아영·정현원, 2010).

일본의 경우 핵가족화와 1인가구의 증가로 아동, 청년, 고령자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세대교류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다. 결국 2010년 세대간교류학회(世代間交流学会)를 설립하여 노인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아동, 청소년, 청년층 세대의 삶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여 고령화를 통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세대교류는 노인복지와 육아 모두의 욕구에 대응, 교육 제도의 강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 개선,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지역의 지원 체계의 강화를 증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世代間交流学会, 2016). 모든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가족, 지역, 학교, 문화, 직장, 언론,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와 실천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대교류의 개념에는 세 가지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안태운 등, 2011). 첫째, 세대교류의 범위는 아동이나 청년, 장년, 및 노년층의 전 연령층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세대별로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에너지, 그리고 자원을 다른 세대와 교류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세대교류를 통해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동과 청소년은 인간성, 생활능력, 직업관 등에 관련하여 풍부한 지혜와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노년층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이 높아진다. 가족의 경우는 결속력이 높아지고,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대교류는 아동기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상호교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질 향상과 주위의 사람과 사회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조성에 관련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2. 세대교류의 유형

세대교류의 유형은 공간 및 시간의 범위 그리고 세대교류의 의도성(성격)을 토대로 분류할 수 있다(박혜선, 2009). 먼저 세대교류가 발생하는 공간의 차원에 따라 미시적, 중간적, 그리고 거시적 공간범위로 구분된다. 세대교류 활동의 지속시간을 기준으로는 계속적 및 일시적 교류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미시적 공간범위는 특정한 장소(친밀한 공간), 중간적 공간범위는 주거시설과 같은 공간, 그리고 거시적 공간범위는 거리 및 마을 등을 의미하며, 그 공간에서 아동부터 노인세대까지의 세대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안태운 등, 2011).

세대교류의 종류는 교류가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성격이나 의도된 계기를 토대로도 구분될 수 있다(박혜선·박영기, 2008). 세대교류가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성격에 따라서는 직접교류와 간접교류로 구분된다(안태운 등, 2011; 추병완, 2011). 직접교류는 아동, 청소년, 중장년, 및 노인 세대가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 반면 간접교류는 직접적인 상호작용보다는 문이나 창을 사이에 두고 다른 세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주로 시각과 청각을 통한 일방적인 접촉이라고 할 수 있다(박혜선, 2009).

다음으로 세대교류가 발생하도록 의도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교류 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획교류와 자주적 교류(우발 및 자발교류)는 세대교류가 발생한 의도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기획교류는 세대교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사회프로그램 및 제도의 준비를 통해서 행해지는 교류인 반면, 자주적 교류는 제도 및 프로그램으로 세대교류를 전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세대교류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주적 교류 형태 중에서 우발교류는 일상생활 중에서 인위적인 성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류가 발생한 것인 반면, 자발교류는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아니라 아동부터 청년, 중장년, 노인 등이 능동적 및 적극적 참여자로 세대교류를 하는 것을 뜻한다(박혜선, 2009; 안태운 등, 2011; 추병완, 2011).

또한 간접적 교류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예들은 확대된 접촉(extended contact), 대리적 접촉(vicarious contact), 의사사회적 접촉(para-social contact), 상상된 접촉(imaged contact) 등이 있다(추병완, 2011; Dovidio, Eller, & Hewstone, 2011). 확대된 교류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각기 다른 세대에 속하더라도 서로 친구와 같은 존재임을 학습하는 것이고, 대리적 교류는 다른 세대들이 교류하는 모습의 관찰을 토대로 교류가 가져다주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의사 사회적 접촉은 미디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세대교류를 접하는 것이고, 상상된 접촉은 자신이 긍정적인 세대교류에 참여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적 교류도 세대 간 관계의 개선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

3. 세대교류 이론: 접촉가설이론

노년사회학(gerontological sociology)에서는 노년세대가 사회적으로 분리되거나 고립될 수 있는 위험을 과거에는 연령계층화이론(age stratification theory)이나 상징적 상호작용이론(symbolic interaction theory),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갈등이론(conflict theory), 현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 등으로 설명했다(Hooyman & Kiyak, 2011). 이러한 이론은 세대교류 증가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성과(예: 세대 간 소통이나 교육, 가족 공동체 의식 제고)를 설명할 수 없다. 즉 세대 간 분리나 단절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이론들로는 세대교류의 증진을 설명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접촉가설이론은 초기에는 인종 및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접촉이 많아질수록 대상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립되었다(Amir & Ben-Ari, 1985; Maruyama & Woosnam, 2015). 그러나 근래에는 세대들 간의 접촉의 질(contact quality), 다른 세대에 대한 태도, 고정관념, 세대교류의 효과(예: 세대 간 협동, 상호작용, 기술·지식·경험 등의 공유)를 설명할 때 자주 활용되고 있다(김혜경, 2013; Fox & Giles, 1994; Teater, 2016). 특히 Fox와 Giles(1994)는 접촉가설이론에 기인한 세대 간 접촉 모델(intergenerational contact model)로 세대교류를 설명했다.

접촉가설이란 Allport(1954)가 그의 저서 편견의 성격(nature of prejudice)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용어인데, 그는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

과 접촉하는 기회가 잦을수록 공감대와 이해가 형성되면서 편견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즉 다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교류를 통해 잘못된 편견 대신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Allport(1954)가 집단 간 접촉의 긍정적 효과를 제안한 이후부터 집단 간 접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및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현재까지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Ellison & Powers, 1994; Miller & Brewer, 1984).

특히 접촉가설이론을 제기한 초창기 학자들은 집단 간 접촉이 긍정적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들은 집단 간 교류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서로 동등한 지위(equal status within the contact situation)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 공동 목표(common goals)를 위해서 상호의존적이어야 하는 것, 집단들이 서로 연합(intergroup cooperations)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는 것, 그리고 집단 간 교류가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권위자(전문가)로부터 규범적인 지지(support of authorities, law, or custom)의 경험이다(Seaman, Beightol, Shirilla, & Crawford, 2010). 실제로 다수의 연구들에서 이러한 네 조건이 충족할 때 편견이 감소함을 확인되었다(Pettigrew & Tropp, 2006, 2008).

집단 간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접촉 방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Dixon 등은 그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접촉의 조건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이들은 ① 정기적이고 빈번해야 함, ② 내집

단과 외집단 성원의 비율을 균형 있게 유지 함, ③ 참된 만남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④ 다양한 사회적 공간 및 상황에서 이루어짐, ⑤ 참여자들이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⑥ 참여자들의 지위가 평등할 수 있어야 함, ⑦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대상이 되는 타 집단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포함, ⑧ 목적 실현을 위해 협동이 가능해야 함, ⑨ 규범이나 제도적 지원을 받아야 함, ⑩ 개인적으로 진정한 우정(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함, ⑪ 다른 집단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구성원과 이루어져야 함 등이다(추병완, 2011; Dixon, Durrheim, & Tredoux, 2005).

그러나 접촉가설이론으로 세대교류 효과 등 제반 특성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에 발생하는 편견이나 차별 등의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지만, 제도적 및 환경적 차원보다는 개인적 차원에 국한하여 접근한다는 점이다. 특히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세대 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인적 세대교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개인주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추병완, 2011). 곧 세대교류가 개인수준에서 사회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III. 세대교류의 긍정적 효과

세대교류는 접촉이나 상호작용, 의사소통 등을 통해서 세대 간에 지식이나 정보, 가치, 기술, 생각, 신념 등이 교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개인(전 세대)이나 가족, 지역

사회 및 국가차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동서를 막론하고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권용신·전보경, 2015; Lloyd, 2008). 세대교류의 효과는 특정 세대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전 세대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노년층은 세대교류로 통해 외로움, 우울, 고립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Cacioppo, Hughes, Waite, Hawkey, & Thisted, 2006), 청년층은 인적자본(human capital), 삶의 지혜(life knowledge & skills), 문화 및 전통 전수, 노인차별(ageism) 감소 등의 효과를 얻는다(Argote & Ingram, 2000).

1. 세대교류가 손자녀 세대에 주는 효과

세대교류가 3세대인 유아나 아동, 청소년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밝힌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가장 많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은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 태도, 및 고정관념 감소 등이다(권중돈, 2005; 김혜경, 2013; Fox & Giles, 1993; Penick, Fallshore, & Spencer, 2014). 안태윤 등(2011)과 한정란(2015)이 체계적으로 검토한 세대교류의 구체적 효과는 아홉 가지 영역이다. 이들은 ① 인성(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간성 함양), ② 공동체 의식(공동체적 이해와 협력의 경험), ③ 자아존중(노인 등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자존감 향상), ④ 인간관계(연장자를 지도자나 간섭자가 아닌 자로 접촉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 ⑤ 사회적 지지(부모나 조부모, 친지 등을 사회적 지지자로 인식), ⑥ 노인편견(노인에 대한 편견 감소), ⑦ 자기 이해(다른 세대와의 관계를 통해 현재의 자신

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 ⑧ 표현력(다른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표현력 풍부해짐), 그리고 ⑨ 삶의 지혜나 가치, 전통문화 계승(노년층과의 교류를 통해서 삶에 대해 축적된 지식이나 가치, 전통문화 등의 계승)이다.

2. 세대교류가 부모세대에 주는 효과

세대교류가 2세대인 청·장년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1세대와의 교류를 통해서 노인 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는 것 그리고 3세대(자녀)가 1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 만족하여 결과적으로 가족관계가 증진되는 것이다(나향진·정효정, 2015; Chorn-Dunham & Casadonte, 2009; Roehlkepartain, 2015). 한정란(2015)은 특히 2세대(젊은 세대)가 활발한 세대교류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들은 ① 노후준비(젊은 세대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장년기나 노년기에 대해 노인의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득하는 것), ② 경험과 지혜(노인 세대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획득한 교훈이나 지식, 전문성, 지혜 등을 습득하는 것), ③ 문화유산이나 전통 및 역사의 이해(사회 문화적 유산이나 전통, 역사를 생생하고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 ④ 자녀 및 부모와의 관계 증진(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기회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⑤ 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노인과의 경험을 통해 노인이나 노화과정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바람직함 태도를 형성함) 등이다.

3. 세대교류가 노부모세대에 주는 효과

1세대가 경험하는 2세대 및 3세대와의 사회적 접촉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Grundy, Fletcher, Smith, & Lamping, 2007). 이는 노년층이 2세대 및 3세대와의 세대교류를 통해서 정신건강과 삶의 질이 증진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체적 건강이 저하되어 있더라도 세대교류를 지속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또래집단보다 심리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rundy et al., 2007).

윤태운 등(2011) 그리고 한정란(2015)에 의하면, 1세대(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세대교류의 긍정적 효과는 아홉 가지로 정리된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회 변화 감각 및 새로운 지식(젊은 세대로부터 현재 사회의 변화에 대한 감각과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음), ② 고독감 저하(일상생활에서의 외로움이 감소됨), ③ 삶의 질 향상(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질 향상), ④ 존재가치의 인식(스스로에 대한 존재가치 인식), ⑤ 삶의 만족도 증가(삶의 보람 등 주관적 행복감의 상승 및 건강상태 향상), ⑥ 폭넓은 인간관계(인간관계를 경험하는 폭이 넓어짐), ⑦ 신체적 건강 유지(신체적 건강상태의 쇠퇴를 지연시킬 수 있음), ⑧ 언어능력 및 사고력 유지(언어능력과 사고력의 감퇴를 예방할 수 있음), 그리고 ⑨ 뇌의 활성화(젊은 층의 문화와 현대적 경향에 접하면서 뇌의 활성화가 촉진됨) 등이다.

4. 세대교류의 사회적 효과

세대교류가 단순히 1세대나 2세대, 3세대에

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세대교류의 사회적 파급 효과는 ① 3세대(유아·아동·청소년)가 한 사람으로서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것, ② 세대교류를 통해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 문제를 개선하는 결과를 초래해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 ③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 및 고정관념과 같은 노인차별이 감소시키면서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고립 및 건강 저하를 예방하는 것 등이다(권용신·류기덕, 2015; 권영신·전보경, 2015; 나향진·정효경, 2015; 한정란, 2015; Lloyd, 2008; Sechrist & Fingerman, 2015).

1) 인성교육 효과

유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3세대는 세대교류를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배우면서 인성 함양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온다. 세대교류의 인성교육 효과는 국내외의 여러 문헌에 소개되고 있다(김영옥, 2014; 나향진, 2011; 나향진·정효정, 2015; 배운진·김현주, 2009; 한정란·최상민, 2004; Lee, Dik, & Barbara, 2015; Lloyd, 2008; Umberson, 1992; Ying, Coombs, & Lee, 1999). 예를 들면, 나향진과 정효정(2015)은 1·3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통하여 만족스런 인성교육의 효과를 보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역시 배운진과 김현주(2009)도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대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생활습관을 비롯하

여 자아확립이나 공동체 의식, 신체 발달, 사회성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Roehlkepartain(2015)도 세대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타인을 돕는 성향, 타인과 공유하고 협동하는 성향 등이 높아짐을 그리고 Augustin 및 Freshman(2015)도 세대교류를 하는 대학생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또 자신의 잘못된 선입견을 개선하는 것을 보고했다.

2) 가족건강 증진효과.

한국사회의 가구형태에서 1-2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4인 이상의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가족의 건강성 및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이민홍·전용호 등, 2015; Lloyd, 2008). 특히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거나 이혼율이 증가하고 또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사회현상의 변화로 세대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Sechrist & Fingerman, 2015). 여러 연구들은 세대교류가 가족의 건강성 및 결속력을 증진시키므로 가족해체가 예방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나향진·정효정, 2015; Chorn-Dunham & Casadonte, 2009; Lloyd, 2008). 나향진과 정효정(2015)과 의하면, 학부모는 자녀가 세대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통문화의 가치 인식을 더 잘 할 수 있으며 또 예의가 더 바른 모습으로 변함을 확인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향상되었던 것이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세대(1세대)를 역할 모델로 바라보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여 부모세대와의 관계도 개선된 것이다. 곧 세대교류는 가족의 건강성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변인이며, 가족의 결속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성 및 결속력을 측정하는 하위 구성요인으로 가족 내 세대교류 정도가 포함되고 있다 (Gillespie & van der Lippe, 2015).

3) 고령사회 문제의 완화효과

초고령사회 국가(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수 중 20% 이상) 진입을 10년 이내로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 노인문제는 사고(四苦)로 질병문제(건강악화 및 돌봄), 고독과 소외문제(심리사회적 소외와 고립), 무위의 문제(여가시간의 연장 및 사회적 역할 부재), 그리고 빈곤문제(수입 감소와 경제적 의존)이며, 노인 우울, 노인자살, 노인학대, 자기방임 등이 사고(四苦)의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이민홍 · 고정은 등, 2015). 일부 노인들이 겪는 사고 문제는 세대교류를 통해 그 심각성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세대교류가 노인의 정신건강(우울증상, 고립감,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 등) 증진과 노인차별주의(편견, 고정관념) 감소에 매우 효과적임을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권영신 · 전보경, 2015; 한정란, 2015; Christian, Turner, Holt, Larkin, & Cotler, 2014; Grundy et al., 2007; Lloyd, 2008).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예를 하나 들면, 1-3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한 청소년(90명)이 세대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 집단(89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인들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김혜경, 2009). Li와 Zhenhui(2016)도 세대교류가

높을수록 노인의 긍정적 감정이 높아지는 반면, 부정적 감정이 감소됨을 보고했다.

IV. 결 론

세대교류의 증진을 위해서 우선 세대 통합적 공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 연령이나 신체적 기능 상태에 관계없이 모두가 이용하기 적합한 통합적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통합적 공간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물리적 환경으로 야외 공간 및 건물, 교통, 주택 등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접근성, 기능성 등이 장벽 없는(barrier-free) 공간이 되어야 한다. 도로나 산책로, 공원, 관공서, 상업 건물,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사무실, 주택 등이 모든 연령과 신체능력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편의시설에 대한 검사 제도를 토대로 세대 통합적 공간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지자체 차원에서 세대 통합적 공간임을 인증하는 등 노인시설과 아동시설을 공유 공간 설치를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 연령이나 건강상태로 공간 이용에 대한 차별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시켜야 한다.

역시 세대교류 플랫폼(platform)을 설정하고 세대교류를 위한 전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먼저 세대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베이스로 개발해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세대교류를 위한 정보도 제공 받고, 그 자체 플랫폼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세대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주는 것이다. 태아의 상태로부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대상이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함께 살 때 접촉이나 상호작용, 의사소통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세대 간에 서로 지식, 정보, 가치, 기술, 생각 등을 전수하거나 교환될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세대교류 전달체계의 수립에는 3대 교류센터와 같이 새로운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법,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이나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등의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세대교류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세대교류 증진 연구, 세대교류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등을 토대로 세대교류 전달체계가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지역사회,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화된 활동(organized activities)을 설계하여 세대교류를 통한 긍정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세대교류는 특정 세대에게만 한정적으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게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며, 사회적 문제(예: 아동·청소년 자살, 학교폭력, 가정해체, 노인자살)를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조직, 마을, 가정 등 다양한 사회체계에서 세대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실천(intergenerational programs & practice)을 개발하고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노년층 집단 내 질적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하고 노년층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영국 북부에서 실시한 한 노인이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역할을 하면서 삶의 기술(life skills), 건강한 삶, 문화, 역사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도 응용해볼 가치가 있다(Lyod, 2008).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독거어르신 대학생 주거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주거비 부담을 낮추면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이민홍·전용호 등, 2015).

참고문헌

- 강은나·박세경·배혜원·이민홍·박은정·오세웅·홍이진 (2014).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연구보고서 2014-22-1 총괄보고서).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용신·류기덕 (2015). **할매할배의 날 활성화를 위한 도민인식 조사 연구**(경북행복재단 정책연구보고서 2015- 07). 경북 구미: 경북행복재단.
- 권용신·전보경 (2015). **손주맞이 조부모교육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연구**(경북행복재단

- 정책연구보고서 2015-06). 경북 구미: 경북행복재단.
- 권중돈 (2005). 노인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의 세대통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15-33.
- 김기화 · 양성은 (2016). 자녀가 경험한 부모 이혼과 부자가족으로의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4, 83-96.
- 김수영 · 이민홍 · 장수지 (2014). 노인일자리아업 참여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 변화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4, 371-393.
- 김영옥 (2014). 유아-조부모 세대간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유아교육연구**, 34(6), 173-207.
- 김유경 (2015).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갈등양상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28호, pp. 49-6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10월 발간)
- 김재엽 · 류원정 · 곽주연 (2015).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위험성의 관계에서 TSL(부모-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0(3), 425-447.
- 김지인 · 부윤정 · 이지선 (2015). 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8(2), 89-98.
- 김진혁 (2013). 패륜범죄의 원인 및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9(2), 49- 69.
- 김혜경 (2013). 노년과의 긍정적 교류경험이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세대통합적 노인유사체험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미래창소년학회지**, 10(4), 45-68.
- 나향진 (2011). 노인이 경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199-227.
- 나향진 · 정효정 (2015). 학부모가 경험하는 1.3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의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0(1), 749- 775.
- 박영숙 (2015). 효 복지를 통한 교정복지 실천 방안: 노인 학대 범죄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36, 117-137.
- 박혜선 (2009). 일본 노유복합시설의 세대간 교류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의료 · 복지건축**, 15(3), 51-59.
- 박혜선 · 박영기 (2008). 종합사회복지관 세대간 교류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4(9), 133-143.
- 배운진 · 김현주 (2009). 너싱홈 세대교류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27(2), 53-70.
- 보건복지부 (2015).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정책과 보도자료, 2015. 04. 01.).
- 신재한 · 권택환 · 강윤정 (2015). 뇌교육 기반 인성교육과정이 청소년의 인성지수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6(4), 1005-1022.
- 안태운 · 서해정 · 박혜선 · 김명일 (2011). **세대교류를 위한 “3세대 이음터” 운영모델 개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보고서 (2011. 12. 15. 발간).
- 이민홍 · 고정은 · 김순은 (2015). 기초자치단체 노인문제지수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2(2), 113 -134.
- 이민홍 · 이재정 (2010). 노인의 사회적 가치평가척도의 개발. **노인복지연구**, 49, 379- 403.

- 이민홍 · 전용호 · 김영선 · 강은나 (2015).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 대응전략**.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571-01).
- 이훈 · 노성훈 · 조준택 (2016). 가정폭력사건 경찰신고의향 영향 요인: 서울특별시 가정폭력 빈발지역의 지역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0(1), 3-37.
- 정아영 · 정현원 (2010). 세대간 교류공간 디자인의 감성공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0(2), 107- 116.
- 추병완 (2011). 접촉 가설에 근거한 반편견 교수 방법. **윤리연구**, 81, 239-262.
- 통계청 (2015a). **2015 청소년 통계**.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 통계청 (2015b). **2014년 혼인 이혼 통계**.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한정란 (2015). **노인교육론**. 서울: 학지사.
- 한정란 · 최상민 (2004). 세대공동체 봉사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변화.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7(4), 75-100.
- 日本世代間交流学会 (2016). ‘日本世代間交流学会’設立の背景と目的(<http://www.jsis.jp/introduction.html>)
- Allport, G.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Boston, Massachusetts: Beacon Press.
- Amir, Y., & Ben-Ari, R. (1985). International tourism, ethnic contact,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Social Issues*, 41(3), 105-115.
- Argote, L., & Ingram, P. (2000). Knowledge transfer: A basis for competitive advantage in firm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82(1), 150-169.
- Augustin, F., & Freshman, B. (2016). The effects of service-learning on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37(2), 1-22.
- Austin, C., Des Camp, E., Flux, D., McClelland, R., & Sieppert, J. (2005). Community development with older adults in their neighborhoods: The elder friendly communities program.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86(3), 401-409.
- Cacioppo, J., Hughes, M., Waite, L., Hawkley, L., & Thisted, R. (2006). Loneliness as a specific risk factor for depressive symptoms: cross - 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Psychology and Aging*, 21(1), 140-151.
- Chorn-Dunham, C., & Casadonte, D. (2009). Children's attitudes and classroom interaction in an intergenerational education program. *Educational Gerontology*, 35(5), 453-464.
- Christian, J., Turner, R., Holt, N., Larkin, M., & Cotler, J. (2014). Does intergenerational contact reduce ageism: When and how contact interventions actually work? *Journal of Arts and Humanities*, 3(1), 1-16.
- de Souza, E., & Grundy, E. (2007).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 social capital and health: Results from a randomised

- controlled trial in Brazil. *Social Science & Medicine*, 65(7), 1397-1409.
- Dixon, J., Durrheim, K., & Tredoux, C. (2005). Beyond the optimal contact strategy: A reality check for the contact hypothesis. *American Psychologist*, 60(7), 697-711.
- Dovidio, J., Eller, A., & Hewstone, M. (2011).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through direct, extended and other forms of indirect contact.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4(2), 147-160.
- Ellison, C., & Powers, D. (1994). The contact hypothesis and racial attitudes among Black Americans. *Social Science Quarterly*, 75(2), 385-400.
- Fox, S., & Giles, H. (1994). Accommodating intergenerational contact: A critique and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Aging Studies*, 7(4), 423-451.
- Gillespie, B., & van der Lippe, T. (2015). Intergenerational cohesiveness and later geographic distance to parents in the Netherland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23, 56-66.
- Grundy, E., Fletcher, A., Smith, S., & Lamping, D. (2007). *Successful ageing and social interaction: A policy brief*. London: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 Henkin, N., & Kingson, E. (1998/1999). Keeping the promise (caring for the elderly). *Generations*, 22(4), 16-22.
- Hooyman, N., & Kiyak, H. (2011).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New York: Pearson.
- Kaplan, M., Liu, S., & Radhakrishna, R. (2003). Intergenerational programming in Extension: Needs assessment as planning tool. *Journal of Extension*, 41(4), Feature articles: 4FEA5.
- Lee, C., Dik, B., & Barbara, L. (2016).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individual adjustment during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37(10), 1412-1432.
- Lee, M., & Kolomer, S. (2007). Design of an assessment of caregivers' impulsive feelings to commit elder abus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7(6), 729-735.
- Levasseur, M., Desrosiers, J., & Tribble, D. (2007). Comparing the disability creation process an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models.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4(ICF Special Issue), 233-242.
- Li, Z., & Zhenhui, C. (2016).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Chinese oldest-old. *Chinese Studies*, 5(2), 15-26.
- Lloyd, J. (2008). *The state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today*. London: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 Maruyama, N., & Woosnam, K. (2015). Residents' ethnic attitudes and support for ethnic neighborhood tourism: The case of a Brazilian town in Japan. *Tourism Management*, 50, 225-237.
- Miller, N., & Brewer, M. (1984). The social

- psychology of degeneration: An introduction. In N. Miller & M. Brewer (Eds.), *Groups in contact: The psychology of desegregation* (pp. 1-8). London: Academic Press.
- Musgrove, F. (1963). Inter-generation attitude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 209-223.
- Penick, J., Fallshore, M., & Spencer, A. (2014). Using intergenerational service learning to promote positive perceptions about older adults and community servic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Inter - generational Relationships*, 12(1), 25-39.
- Pettigrew, T., & Tropp, L.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751-783.
- Roehlkepartain, J. (2015). Building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adults. *Lifelong Faith*, 8(3), 8-13.
- Sander, T., & Putnam, R. (2006). Social capital and civic engagement of individuals over age fifty in the United States. In L. Wilson & S. Simson (Eds.), *Civic engagement and the baby boomer generation: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perspectives*(pp. 21-39). New York: The Haworth Press.
- Seaman, J., Beightol, J., Shirilla, P., & Crawford, B. (2010). Contact theory as a framework for experiential activities as diversity education: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Experiential Education*, 32(3), 207-225.
- Sechrist, J., & Fingerman, K. (2015).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N. Pachana, *Encyclopedia of gero - psychology* (pp. 1-8). Singapore: Springer.
- Teater, B. (2016). How stereotypes and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are challenged through intergenerational contact: Young people explain the process.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Published online: 17 Feb 2016). doi:10.1080/02701960.2015.1115985
- Umberson, D. (1992).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both gene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3), 664-674.
- Ying, Y., Coombs, M., & Lee, P. (1999). Family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of Asian American adolesc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5(4), 350-363.

원고접수일: 2017. 09. 22.

수정원고접수일: 2017. 10. 26.

원고게재승인일: 2017. 11. 02.